

# 끝 없는 의-정 갈등... 끝 모를 의료 붕괴

### 전공의 미복귀에 인턴·전임의 임용 포기... 남은 의료진 피로감 가중 전남대·조선대 병원 등 축소 운영... 잇단 수술 연기에 환자들 아우성 3차 병원의 의료 붕괴 가속화 가능성 속 의대생 집단 유급사태 올 수도

정부가 사법처리를 내세워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광주지역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인턴과 전임의들의 임용포기가 속출하면서 '3월 의료붕괴'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의료진 공백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 병원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수술이 연기되는 광주·전남 지역 환자와 가족이 14일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 대학생들까지 동맹휴학을 철회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로 인한 집단 유급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인턴·전임의 출사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2주를 넘긴 상황에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새롭게 들어올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이 추가로 병원을 떠나고 있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4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전남대병원 소속 전임의 66명의 계약은 지난달 말로 종료됐고,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52명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근무 중인 2년차 전임의 19명 중 15명이 계약 종료로 병원을 떠났고, 이날 신규 전임의 14명 중 11명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 사실상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날부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전공의인 인턴으로 임용돼 근무하기로 한 이들도 무더기 임용을 포기했다.

전남대병원에서 3월부터 근무하기로 한 인턴 101명 가운데 86명이 임용을 포기하고, 조선대병원에서 수련예정인 신규 인턴 36명 전원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병원 측은 교수 등 전문의의 근무를 더 늘려 전임의 추가 이탈 공백을 메울 예정이지만, 병원 축소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잇단 수술연기에 환자들 아우성=상급병원 의료 공백으로 환자를 받아온 광주지역 3차 병원에서 응급실과 수술 등을 축소 운영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광주지역 상급병원 응급실에는 구급차량이 오갔지만 다행히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진료 연기가 생겨 치료에 지장이 생길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병원들의 수술이 급격히 줄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온라인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안과질환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한 보호자는 "아이 안과 수술을 위해 전남대병원에 수술일정을 문의했더니 가장 빨리 해도 4월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갑상선 질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는 한 지역 누리꾼이 "아버지가 6일 화순전대병원에서 수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수술 취소 연락 받았다"면서 "언제 수술 가능한지 날짜도 안 알려 주고 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됐다고 하는데 언제 수술 가능한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수술 예정이었으나 4월 중순으로 밀렸다는 댓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4일 현재 조선대 의대에서는 정원 727명 가운데 600여명이 단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남대 의대에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732명 가운데 57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입대·유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한 이들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을 반발해 동맹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는 지난 2월 개강했으나 집단 휴학계 제출로 수업에 차질을 빚자 개강을 이달 초로 한차례 연기했다.

문제는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4일 오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전공의 미복귀 현황 파악을 위해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내 교육 수련실로 들어가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역 대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강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하면 무한정 개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개강을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교수회의를 통해 학사일정 추가 연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번 달 셋째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무작정 개강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30대 엄마·초등생 딸 아파트서 추락 사망

### 광주서부경찰, 조사 나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30대 여성이 초등학생 딸과 함께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광주서부경찰과 광주서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노상주차장 및 화단에서 30대 여성 A씨와 딸 B(7)양이 16층 높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A씨와 B양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보니 집 안에서 아내와 딸이 보이지 않았고,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은 "A씨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 2일여 전부터 '병원을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병원 진단을 받은 기록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와 B양의 시신상태를 확인한 결과 추락시각은 이날 이른 새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현장이나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 및 범칙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현직 소방관이...술 취해 바지 벗고 도로 활보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도로를 활보한 현직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소방관 3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로徘徊한 혐의를 받는

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또한 경찰 조사와 별개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전남대도 45명 안팎 의대 정원 증원 신청할 듯

### 조선대는 45명 늘리기로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45명과 50명 안팎으로 의대정원을 늘려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방침에 따라 40~50명 규모로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125명인 전남대는 연휴 기간 의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 이같은 규모로 정원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는 실제 확보한 인원이 아니라 희망을 반영한 신청인만큼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가 증원 신청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료 대란을 촉발한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이라는 또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대는 정원이 125명인데, 추가 증원에 따른 교수진과 시설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45명을 늘

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오는 4월까지 각 대학에 증원인원을 배정하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늘려 뽑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